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의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애가 3:22-23)

새해의 한 달을 보내면서 성도들과 함께 다니엘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에게도 감사와 함께 선교소식을 전합니다. 고국의 올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러한 때에 더욱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절실함을 보며 중보의 사랑의 수고에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주일학생>



수요예배를 마치고 낯선 것 같으면서도 낯설지 않은 얼굴의 청년이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10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으로 이웃에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10년의 시간이 지나, 어엿한 청년이 되어 혼자서 아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과거의 주님을 만났던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반가운 마음은 물론이고 놀라운 주님의 격려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찾아오는 이들을 볼 때면 그 어느 격려보다도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이 교회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교회에 다시 출석하겠노라고 하면서 목장모임과 수요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의 결혼예식>

멕시코의 서민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예식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15-17세 사이의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혼에 대한 그림, 계획이나 준비가 없이 함께 살기 때문에 결혼 아닌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쉽게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젊은 청년들의 혼인예식을 통해 결혼의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결혼예식을 통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을 그려주려고 했지만 이미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예식을 하지 못했던 목자,목녀들의 혼인예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며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결혼예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젊은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교회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연합모임>



청소년이란 단어는 많은 이들에게 지난날을 추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의 “청소년”이란 단어는 희망과 기대, 가능성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아픈 현실입니다. 아직 미래를 준비를 하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견해 나가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들로부터 자의든 타의든 일찍 엄마가 되어있는 청소년들까지 다양한 상황속의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지만, 사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며 서로 함께 협력하며 돕고 있는 교회들과 연합 청소년 모임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청소년 연합 모임을 통해 말씀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알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건전한 교제로 이끌며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함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모임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을 세워나가는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을 맞아하며...>

3년여 가까운 코로나의 어려움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2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감사예배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도 함께 앉아 있는 듯한 형제자매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좋은신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보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확신하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기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소망을 함께 나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2023년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2. 지속적인 영혼구원과 제자만드는 사역을 통해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3. 새롭게 시작되는 토요 Kid Cafe와 한국어교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4. 가족의 건강(아내-디스크 회복과 저의 협심증)과 안전, 그리고 둘째(은서)의 대학진학 가운데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5. 사역과 가정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과 동역자들이 더해 질 수 있도록

멕시코에서 2023년 1월  
추기성, 정지연선교사드림